

한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어문화 학습현황과 활용전망

문 형 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V. 맺음말 |
| II. 한국어문화 습득과정과 구사정도 | 참고문헌 |
| III. 한국어문화 활용전망 | Abstract |

Key words(중심용어): 중국인 유학생(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한국어 학습(Korean Language Study), 한국어 활용(Utilization of Korean Language), 한국어교육기관(Korean Language Educational Institutions), 한국어(Korean Language)

국 문 요 약

이 논문은 한국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어문화 교육 실태를 점검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내 많은 외국인들 중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은 한국내 외국인 유학생들 중 중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II장 한국어문화 습득과정과 구사정도에서는 한국어 습득 실태와 구사 대상 그리고 대학수업에서의 한국어 적응정도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한국어를 한국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 대학에 진학하고 있었고, 주로 같은 과 학우와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이해하는데 곤란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 학술용어와 숙답 등에 곤란을 느낀다고 밝히고 있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함께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III장 한국어문화 활용전망에서는 대학 졸업 후 진로와 한국어의 상관성을 살펴본 후 향후 한국어에 대해 전망해 보았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하기를 희망하였고, 취업하더라도 한국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기를 희망하였다. 중국내에서의 한국어 전망에 대해 무역규모 증대와 문화교류 확대 등을 이유로 계속 증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I. 머리말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인 유학생이 6만3천209명으로 78%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2005년 45.7%, 2006년 55.9%로 증가하다가 2008년에 이르러 27.7%, 그리고 2009년 13.2%로 감소하고 있다.¹⁾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도 2007년 66.1%를 정점으로 하여 2008년 40.6%로 감소하더니 2009년에 이르러서는 19.5%로 급감하고 있다.²⁾

이렇듯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입국이 줄어드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특히, 중국인 유학생의 감소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왜일까? 전체 외국인 유학생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인 유학생의 감소 원인이 미국이나 유럽 대학으로 이전보다 가기 쉬워서이거나, 아니면 학부모들의 경제 상황이 이전보다 더 나아져서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라면 한국과 한국 대학 교육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외국인 유학생들이 줄어드는 이유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 중 내부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중국 내 부자 증가와 유학에 따른 부담 경감, 그리고 선진 문화 습득 욕구 등은 중국 내의 변화 양상이기에 우리들이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내 교육 기관의 교육 시스템과 커리큘럼,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인식제고 등은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고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작성되었다. 즉, 한국 대학과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한국어문화 교육 실태를 점검해봄과 동시에 외국인 학습자들이 느끼는 보다 효율적인 교육이 행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한국내 외국인 유학생중 중국인 유학생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먼저 조사해 보았다.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어에 대한 인식과 수업현황 그리고 대학원 진로계획 등을 살펴보면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어 교육기관의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전보다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어로 입국하기 전에 한국어를 습득하고 한국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대학생 중 교환 학생으로 입학하는 학생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에 대한 기초가 습득된 후 한국에 진학하고 있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중국 내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학생도 있어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도 부분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문화 수용 양상에 대해 살펴본 후 그 활용 전망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서울 소재 대학과 충청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어 전공자 6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서울권과 충청권

1)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 “국내 대학들 중국유학생 유치에 올인,” 『연합뉴스』, 2010년 7월 2일.

을 병행 조사할 때 보다 객관성이 담보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 2010년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설문조사를 행하였고 충청권의 경우 6월 1일~15일 사이에 행해졌다.

II. 한국어문화 습득과정과 구사정도

본 조사는 한국내 중국인 유학생 중 한국어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에 온 지 2년 이상 3년 이하 학생이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된 학생이 15명, 1년 이상 2년 이하가 11명, 그리고 1년 이하가 12명이었다. 본 조사에 참여한 64명 중 남학생이 33명이었고, 여학생이 31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부모에게 생활비를 의존하고 있었고, 7명이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3명만이 장학금으로 생활하고 있었다.³⁾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대부분이 생활비를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유학 국가로 한국을 선택하게 된 동기와 한국어 습득 과정 등에서도 부모의 깊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족으로 나타나⁴⁾ 유학 국가로 한국을 선택한 배경에 민족적인 동질성이나 한국어에 대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많은 학생들이 한국 입국 후 한국어 교육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어 중국 내 한국어 교육 기관이 보다 확대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장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어 습득 과정과 구사 정도를 살펴봄에 있어 대학 입학 전과 대학 생활, 그리고 수업 시간에서의 한국어 구사 정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대학 입학 전 한국어 습득 양태

한국에 유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중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4만 8천 699명 그리고 단기 어학연수생이 1만 4천 510명으로 집계되었다.⁵⁾ 단기어학연수생 중 상당수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어학연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잠재적인 대학생들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 입국 후 한국어를 습득하고 있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대학 내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연수 과정을 밟고 있었다. 짧게는 일 년에서 길게는 2~3년에 걸쳐 한국어를 교육받고 있었다. 본 조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습득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대학 입학 전과 후로 나누었고 한국어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배웠는지 세부적으로 물어보았다.

3) 생활비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53명인 82.8%학생이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다고 답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조사 대상 학생 64명 중 63명이 한족이었고 1명이 회족이었다. 부모들의 경우도 61명의 부모가 모두 한족으로 밝혀졌고 한 분만이 한족이라고 밝힌 경우와 조선족이라고 답한 학생이 각각 1명 이었다.

5) 2009년 현재 전체 외국인 유학생 80,985명 중 유학생이 62,451명 그리고 국어연수생이 18,534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중 중국인 유학생이 48,699명으로 78%를 그리고 국어연수생이 14,534명으로 78.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표 1>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습득 실태

질문	질문 항목							
	① 대학이전		② 중국대학		③ 한국입국후		④ 기타	
1. 한국어를 언제부터 학습하였습니까?	4명	6.3%	15명	23.4%	45명	70.3%		
2. 한국어를 어디에서 학습하였습니까?	① 한국오기전		② 한국입국후		③ 대학입학후		④ 기타	
	19명	29.6%	39명	60.9%	6명	9.5%		
3. 한국어를 누구에게 학습하였습니까?	① 학교선생님		② 부모님		③ 친구		④ 기타	
	60명	93.7%	3명	4.7%			1명	1.6%
4. 한국어를 몇 년 동안 학습하였습니까?	① 2년이상		② 1년이상		③ 1년이내		④ 기타	
	19명	29.7%	17명	26.6%	26명	40.6%	2명	3.1%
5. 그 결과 한국어가 향상되었습니까?	① 매우향상		② 향상		③ 그대로		④ 도움안됨	
	13명	20.3%	29명	45.4%	20명	31.2%	2명	3.1%

<표 1>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다섯 항목으로 나누어 한국어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 동안 학습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었는지를 네 항목으로 나누어 한국어 구사 정도를 판단하여 보았다.

한국어를 언제부터 배웠느냐는 물음에 대해 ‘한국 입국 후에 학습했다’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은 45명으로 70.3%에 달했고, 그 다음으로 ‘중국 대학에서 배웠다’는 학생이 15명으로 23.4%, 그리고 ‘대학 이전 단계에서 학습했다’고 답한 학생이 4명으로 6.3%에 불과하였다. 즉 본 조사에 참여한 중국인 대학생들의 대부분이 한국 입국 후 한국어 교육기관 등에서 한국어를 익힌 후 대학에 입학했음을 알 수 있고, 일부 교환학생들의 경우 중국 내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한편 한국어를 어디에서 배웠느냐는 질문에 대해 19명이 한국에 오기 전이라고 답해 1번 문항의 결과와 일치했으며 한국 입국 후라고 답한 학생 45명 중 39명은 한국 입국 후 대학 입학 전이라고 답해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6명의 학생이 대학 입학 후에 한국어를 습득했다고 답하고 있어 대학 입학 자격으로 한국어 평가가 엄격하게 시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중국인 유학생들 중 일부가 중도에 탈락하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엄격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상기의 질문은 한국어를 누구에게 배웠느냐와 연관되고 있다. 즉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 중 60명인 93.7%가 학교 선생님에게 배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극히 일부인 3명이 부모님에게 배웠다고 답하고 있어 부모 중 일부가 한국어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학 입학 전에 어느 정도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일까? 조사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수가 일 년 이내라고 답했고 (26명으로 40.6%), 그 다음으로 2년 이상(19명으로 29.7%), 그리고 1년 이상 2년 이내가 가장 적은 수(17명인 26.5%)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

6) 조사 대상 64명 중 15명인 23.4%의 학생이 중국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웠다고 답해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 한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를 놓고 볼 때 중국인 유학생 중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한국어를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한국 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습득한 후 자신의 한국어 구사력 정도의 변화를 측정해 본 결과 향상되었다고 답한 학생이 42명인 65.7%로 나타나 한국 내 한국어 교육기관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부분이 한국에 입국 후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그 교육기관은 1-2년 정도 단기간이며 교육 기관을 매우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대학 입학 후 한국어를 배운다든지 한국어를 배운 후 한국어 능력이 향상되지 않았다고 답한 학생도 있어 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요망된다 하겠다.

2. 대학생활과 한국어 구사

조사에 참여한 중국인 유학생들 중 3학년 학생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2학년 13명, 4학년이 7명, 그리고 1학년이 5명이었다. 2, 3학년의 경우 한국에서 보낸 어학연수 기간까지 합치면 한국에서의 생활이 최소 3년 이상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학생들의 분수령을 1년으로 볼 때 한국에서 머문 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이들이 한국어와 대학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의 구사 대상과 구사 능력, 그리고 한국어 능력 향상 정도를 살펴 보았다.

<표 2>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구사 정도

질문	질문 항목							
	① 많은 도움이 됨		② 보통이다		③ 별도움이 안됨		④ 기타	
1. 대입 전에 배운 한국어가 대학교육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까?	29명	45.3%	31명	48.4%	4명	6.3%		
2. 대학 진학 후 당신의 한국어 실력은 향상 되었습니까?	19명	29.7%	39명	60.9%	6명	9.4%		
3. 한국어를 주로 누구와 사용합니까?	45명	70.3%	10명	15.6%	5명	7.8%	4명	6.3%
4. 한국 사람과 대화할 때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까?	13명	20.3%	45명	70.3%	6명	9.4%		
5. 만약 있었다면 어떤 경우였습니까?	17명	36.2%	8명	17%	14명	29.8%	8명	17%

<표 2>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인 구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질문해 보았다. 먼저 대입 전에 배운 한국어가 대학 교육을 받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이에 대해 ‘보통이다’라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은 31명으로 48.4%에 달했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29명으로 45.3%에 달했다. 즉 보통 이상이라고 답한 학생이 60명에 달해 대입 전 한국어 교육기관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 진학 후 한국어 실력 향상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향상되었다고 답한 학생이 58명인 90.6%로 나타나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도 매우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평상시에 한국어를 주로 누구와 사용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같은 과 동료라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고(45명으로 70.3%), 그 다음으로 동아리 친구(10명으로 15.6%)와 룸메이트(5명으로 7.8%)라고 응답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과 그 전후 시간에 한국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룸메이트라고 답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경우 같은 중국인과 생활하는 학생들이 많아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학교 기숙사 내에서의 경우 영어권 학생들과는 영어를 그리고 같은 나라 출신끼리는 자국어를 사용한 데 따른 결과라 생각된다.

한국 사람과 대화할 때 불편한 점이 없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58명의 학생이 ‘불편함이 있었다’고 답해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정도의 인사말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대화가 진행될 경우 전문적인 용어 사용과 어휘력 등에 문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한국인들의 발음과 말의 속도에 불편함에 느낀다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아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의사소통에 불편한 요인으로 문화 차이와 속담, 전문 분야 등을 언급한 학생들도 있어 한국어의 사용과 학습이 단순히 언어 학습 차원을 넘어 문화와 병행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⁷⁾ 독립된 한국 문화 교육이 아니라 한국어를 교육하면서 한국 문화를 활용한 교육이 병행될 때 어휘력이 풍부해지고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 한국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3. 대학 수업과 한국어 적용

필자는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문화의 이해’, ‘한국 사회의 이해’, ‘한국 역사’ 등을 가르치고 있다.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용어에 따라 학생들의 이해력에 차이가 있음을 느낄 수 있

7) 중국인 유학생중 대중매체인 TV나 신문, 혹은 잡지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53.1%인 34명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수업시간에 한국 문화를 접한다는 학생이 43.7%인 28명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적게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 전통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부분에서 ‘중’정도 이해하고 있다는 학생이 40.9%인 30명이었고 ‘하’라고 답한 학생이 45.3%인 26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스스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었다. 전문 용어, 전통 시대의 단어, 그리고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 수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⁸⁾ 결국 개별적인 과목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에 대한 학생들의 선행 학습이 선행될 필요가 있지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어떤 수준의 용어를 선택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전문 용어와 학술 용어를 먼저 숙지시킨 후 관련 사항을 설명하면 수업에 대한 완성도가 높아짐을 느낄 수 있었다. <표 3>은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표 3>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 수업 이해도

질문	질문 항목							
	1. 수업 내용이 이해가 됩니까?	① 모두 이해됨		② 이해됨(80%)		③ 잘 이해되지 않음(50%)		④ 추가 설명 필요(50%이하)
	4명	6.2%	37명	57.8%	16명	25%	7명	10.9%
2. 잘 이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① 선생님께 질문		② 과 동료에게 질문		③ 이성 친구에게 물음		④ 그냥 넘어감	
	31명		41명		12명		16명	
3. 수업에 대해 교수님께 바라는 바가 있다면?	① 영상수업 확대		② 천천히 설명		③ 쉬운 용어 사용		④ 어려운 단어 칠판에 기술	
	13명		30명		29명		25명	

먼저 수업 내용이 이해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41명인 64%의 학생이 80% 이상 이해된다고 답해 많은 학생이 수업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6명의 학생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도 7명에 달해 약 36%의 학생이 여전히 수업에 곤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수업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과 동료에게 묻는다’는 학생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선생님께 질문한다’는 학생과 ‘이성 친구에게 묻는다’는 학생이 31명과 12명으로 그 다음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6명의 학생의 경우 ‘잘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간다’고 답해 수업 내용에 대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느껴졌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선생님들께 어떤 점을 바라고 있을까? 이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느끼는 곤란한 점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가장 많은 학생이 천천히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다음으로 쉬운 용어 사용과 칠판에 판서 등을 당부하였다. 즉 앞에서도 나타났듯이 말의 속도와 전문 용어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영상 수업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한국인의 통과 의례나 민간신앙 등을 설명할 때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났다. 전통혼례의 경우 한중 예법이 비슷하지만 민간신앙 부분은 큰 차이가 있어 상세한 설명이 필요했다. 특히 개별적인 의미를 설명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생활 습관과 사고의 차이로 인해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인의 혼인풍속과 통과 의례는 다음 책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문형진 2005; 2006).

<표 4> 중국인 유학생들의 시험지와 리포트 작성 정도

질문	질문 항목					
	① 있다		② 없다			
1. 중간과 기말 시험지 작성에 문제가 없습니까?	38명	59.4%	26명	40.6%		
2. 시험과 관련하여 교수님께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복수 답 가능)	① 논술식을 단답식으로 16명		② 객관식문항 확대 26명		③ 외국인임을 배려 40명	④ 기타 4명
3. 한국어를 사용한 리포트 작성에 문제가 없습니까?	① 혼자서 작성 18명 28.1%		② 친구의 도움을 받음 28명 43.8%		③ 부족하지만 혼자서작성 18명 28.1%	④ 기타

<표 4>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시험과 리포트 작성의 정도를 기술해보기 위한 설문 문항들이다. 첫 번째 문항인 중간, 기말 시험지 작성에 문제가 없느냐는 문항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한 학생이 38명으로 59.4%에 달해 과반수를 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수업시간에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시험을 보면 많은 학생들이 시험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였다. 듣고 이해하는 것과 자신이 정리해서 논지를 전개하는 것에 괴리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즉,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말을 하는 것보다 문장으로 작성하는 것을 더 어려워했고, 특히 학습 용어나 전문 용어를 활용하는 시험 문항에 대해서는 더더욱 곤란함을 느꼈다.

이러한 경향은 리포트 작성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혼자서 작성하기보다는 친구의 도움을 받는다고 답한 학생이 2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외국 학생들의 경우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책을 읽고 정리하고 리포트를 어렵게 여긴다면 암기하고 이해해서 작성하는 시험이 경우 보다 어렵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이다. 즉,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 있어 말하기와 함께 쓰기 연습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⁹⁾

<표 5>는 한국 내 대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작문 수업이 행해지고 있는지를 조사해보기 위해 구성해 보았다. 그 결과, 34명만이 한국어 작문 수업을 받고 있다고 답해 글쓰기 수업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왜냐하면 작문 수업을 받지 않고 있다는 학생이 30명으로 46.9%에 달했기 때문이다.

9)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의 경우 말하기와 글쓰기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 개설 교과목을 살펴보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글쓰기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표 5>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작문 교학 현황

질문	질문 항목					
	① 상		② 중		③ 하	
1. 자신의 한국어 작문 실력은?	2명	3.1%	50명	78.1%	12명	18.8%
2. 학교에서 한국어 작문 수업을 받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4명	53.1%	30명	46.9%		
3. 한국어를 학교 수업 시간 이외에 배우고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7명		20명			

그렇다면 이들은 한국어 글쓰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일까? 응답자 47명 중 과반수를 조금 넘는 27명이 학교 수업 이외에 한국어를 따로 배우고 있다고 답했다. 이 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자신의 작문 실력을 ‘중’이라고 답한 학생이 50명으로 78.1%를 차지하고 있는 점과 ‘학교 수업 시간 이외에 한국어를 따로 배우고 있지 않다’고 답한 학생이 20명에 이르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학교 측의 배려와 점검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Ⅲ. 한국어문화 활용전망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한다. 국내에서는 한국에 시집 온 이주 여성과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여기에 포함된다.¹⁰⁾ 국외에서는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파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한국 기업 취업 희망자들 그리고 한류 바람을 타고 한국어에 관심을 가진 만학도들을 들 수 있다.¹¹⁾

한국어에 대한 학습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가르칠 교학자 양성도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인 선생님뿐만 아니라 외국인으로 자국민을 교학할 외국인 학습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한국인이 세계 모든 나라 모든 교육기관에 파견되어 한국어를 가르칠 수는 없다.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도 아니다. 때로는 외국인이 한국어의 음운론과 의미 전달 등을 자국 언어로 소개할 때 보다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어려서부터 한국어를 구사한 한국인과는 달리 외국인으로써 한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터득한 방법 등이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에게 효과적인 학습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유학생들 중 한국어를 전공하는

10) 이주 여성과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문화 교육은 대학 내 다문화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다문화센터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일방적으로 교육하던 단계를 지나 이들 국가의 언어와 역사를 상호 존중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11) 2000년대 들어 한류 현상이 급속하게 퍼지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즐기려는 외국인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한국드라마의 인기와 경제소득 차이 등이 이러한 현상을 보다 심화시켰다.

대학생들의 경우 장차 한국어 교사로 양성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이 느끼는 한국어에 대한 열정과 관심, 그리고 향학열은 매우 중요한 관찰 요소라 할 수 있다.

한국어의 세계화와 현지화를 위해서도 이들을 올바르게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장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 중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 후 진로를 조사해 본 후 한국어에 대한 향후 전망을 탐색해 보았다. 특히 진로 부분에서 자신의 전공을 살려 한국어와 관련된 부분을 계속 전공할 경우 미래의 교사 요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한국어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계 회사를 선택한다든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진로와 언어

한국인 근로자 중 자신이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아마도 그 비율이 높지 않을 것이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 점수에 맞추는 경향이 있었고 취업에서도 들어가고 보자는 심리가 팽배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외국인 유학생들은 어떨까? 한국이라는 국가를 선택하고 전문 분야를 결정하기까지 심사숙고했을 것은 자명하다. 왜냐하면 외국인으로써 한국어를 전공한다는 것이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한국어에 대한 열풍이 국내외에서 지속될 것인지 장담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을 택했고 전공으로 한국어를 선택하였다. 과연 이들은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자신의 향후진로에 한국어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들의 견해를 통해 외국 유학생의 전공 만족도와 향후진로 계획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6> 중국인 유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계획

질문	질문 항목							
	① 대학원 진학		② 한국회사취직		③ 중국회사취직		④ 기타	
1. 대학 졸업 후 진로 계획은?	44명	68.8%	5명	7.8%	12명	18.8%	3명	4.6%
2. 학업을 계속한다면 전공하고 싶은 분야는?	① 한국어		② 한국역사와 문화		③ 기타외국어		④ 기타	
	27명	42.2%	5명	7.8%	14명	21.9%	18명	28.1%
3.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① 한국어를 전공해서		②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③ 외국어에 관심이 많아서		④ 기타	
	22명	34.4%	11명	17.2%	15명	23.4%	16명	25%

<표 6>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계획을 살펴보기 위한 문항들이다. 대학 졸업 후 진로 계획이 어떠한가에 대해 가장 많은 44명의 학생이 대학원 진학이라고 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17명이 회사에 취직하겠다고 답했다. 회사에 취직하기를 희망한 학생들 중 12명이 자국 회사인 중국 회사에 취직하고자 하였고, 5명만이 한국 회사 취직을 희망하였다. 그리고 학업을 계속 한다면 전공하고 싶은 분야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해 27명이 한국어라고 답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자신의 전공을 계속 살리고 싶음을 피력하였다. 반면 호텔 관리나 경영학 등 기타 분야에 진학하고 싶다고 답한 학생도 18명에 달하였고 한국어가 아닌 기타 외국어를 전공하겠다고 답한 학생도 1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한국어와 역사문화 분야 전공을 희망한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은 33명의 학생이 전공과목이 한국어인 점과 한국에 대한 관심을 그 이유로 들었다.

상기의 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중국인 유학생들의 높은 대학원 진학률은 한국 대학의 학문 수준을 인정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반면 계속 한국어를 전공하겠다는 학생이 대학원 진학률보다 낮게 나온 것은 한국어에 대한 활용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울러 과반수가 넘는 학생이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은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전공을 그 이유로 든 점으로 볼 때 한국에 대한 애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회사 선택과 한국어

중국인 대학생들은 대학 졸업 후 어떤 회사에 취직하기를 원할까? 아마도 한국어를 전공한 만큼 전공을 살려 취직하기를 원할 것이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한국계 회사건 외국계 회사건 중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사원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증대할수록 중국인 인재의 필요성은 증대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인의 생활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인재일 수 있다. 중국인이면서도 한국인을 이해할 수 있는 이들이야말로 한중 교류 활성화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어에 대한 정열과 한국 유학생들의 긍정성을 되새긴다면 친한파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라면 험한류 대열에 합류할 수도 있는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¹²⁾ 이들의 취업관을 통해 한국 회사에 대한 이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2) 한·중 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은 무역규모의 증대와 인적교류 확대 등을 통해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이 터키를 응원하는 등의 일이 중국인들을 자극하면서 이후 인터넷과 일부 관영매체에서 한국을 비방하는 일이 자주 기사화됐다. 한국인이 중국인의 조상이라고 주장한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이 인터넷에 소개되면서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 한국을 혐오하는 험한론이 급속하게 퍼져갔다. 이 후 양국정부와 교류단체들의 노력으로 일부 오해가 해소되고 있지만 한·미 공조에 따른 정치적 긴장과 경제적인 경쟁 그리고 역사문제 등이 겹치면서 한·중 사이에 긴장 관계가 조성되고 있다.

<표 7> 중국인 유학생들의 회사관과 그 선호도

질문	질문 항목							
	① 한국계 회사		② 중국계 회사		③ 외국계 회사		④ 기타	
1. 회사에 취직한다면 어떤 회사를 선호합니까?	17명 26.6%		23명 36%		17명 26.6%		7명 10.8%	
	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서		② 내 조국에 기여하기 위해서		③ 외국계 회사가 더안정적임		④ 기타	
2.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20명 31.3%		25명 39%		8명 12.5%		11명 17.2%	
	① 월급이 많아서		② 한국기업이 안정적이어서		③ 기업문화가 좋아서		④ 기타	
3. 한국 회사를 선호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32명 50%		13명 20.3%		4명 6.2%		15명 23.5%	
	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서		② 한국인 친구들이 많아서		③ 한국의 자연이 아름다워서		④ 한국의 음식과 기후가 맞아서	
4. 졸업 후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42명 65.6%		10명 15.6%		8명 12.5%		4명 6.3%	

먼저 회사에 취직한다면 어떤 회사를 선호하는지에 대해 물어 보았다. 이에 대해 가장 많은 23명의 학생이 중국계 회사라고 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17명의 학생들이 한국계 회사와 외국계 회사라고 답하였다. 중국계 회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25명의 학생이 조국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했고, 한국계 회사와 외국계 회사를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강점으로 여겼다. 특히 한국계 회사를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 한국계 회사가 월급이 많기 때문이라고 답해 금전적인 욕구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외국계 회사를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 회사의 안전성을 중요 선택 요인으로 삼았다.

아울러 이들이 한국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서라고 답해 언어를 매개로 한 자신의 역할이 한국과의 관련성에 큰 이슈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타 이유로 한국인 친구가 많아서라든지 한국의 자연이 아름다워서라고 답해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기의 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중국인 유학생들의 취업 의식 속에 조국에 대한 충성심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계 회사를 선택한 동기로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점과 월급이 많은 점을 들었고 외국계 회사의 경우 직장의 안정성을 주요 요인으로 든 점에서 볼 때 이들의 취업 우선순위에 조국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이 금전과 개인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직장의 안정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3. 한국인과 한국어에 대한 평가와 전망

본 단락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느낀 감정을 평가해 보았다. 필자가 만나 본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전통 시대 중국이 한국에 많은 우수 문화를 전파해 주었고 그 결과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문화 대국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중화주의와 문화 대국이라는 우월 의식이 매우 강했다. 이러한 관념은 도시와 궁벽한 시골을 막론하고 중국인이 지니고 있는 일관된 견해였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의 이러한 관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교과서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가름해 볼 수 있다(유용태 2003; 2005, 박장배 2003). 중국의 역사, 세계사 교과서에는 중국이 많은 나라에 문화를 전파해 주었고 중국 중심의 질서 속에 주변국이 체제를 유지했다고 서술하고 있다(高級中學課本 1996, 122). 즉 사회주의의 정체성을 극복하고 중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문화의 우월성, 사상 체계의 원류 등으로 대변되는 중화주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¹³⁾ 이러한 교과서를 통해 교육을 받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과 한국인을 바라보는 견해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지 매우 궁금했다.

<표 8>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평가

질문	질문 항목							
	1. 한국에 대한 당신의 평가는?	① 살기 좋은 나라		② 살기 불편한 나라		③ 물가가 비싼 나라		④ 기타
	23명	35.9%	16명	25%	20명	31.3%	5명	7.8%
2. 한국인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① 성격이 급하다		② 약속을 잘 지킨다		③ 정이 많다		④ 경쟁심이 많다	
	18명		9명		13명		18명	
	성격이 느긋하다		지키지 않는다		많지 않다		그렇지 않다	
	4명		19명		10명		4명	
3. 한국에 유학 오기 전과 지금 한국에 대한 견해가 바뀌었습니까?	① 한국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② 변화되지 않았다		③ 한국이 싫어졌다		④ 기타	
	24명	37.5%	26명	40.6%	10명	15.6%	4명	6.3%
4. 만약 바뀌었다면 그 이유는?	① 긍정적으로		② 부정적으로		③ 바뀌지 않음			
	24명	37.5%	23명	35.9%	17명	26.6%		

<표 8>은 중국인 유학생들을 통해 본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평가이다. 한국에 대해 이들은 23명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답한 반면 20명이 물가가 비싼 나라라고 하였고, 16명이 살기 불편한 나라라고 응답하였다. 즉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임에는 분명하지만 물가가 비싸 생활하기에

13) 중국역사 교과서에서는 자국의 영웅들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초급중학교교과서 『중국역사』(제3권), 인민교육출판사, 1990, 180~181쪽).

힘들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¹⁴⁾ 한편 한국인에 대한 평가에서 성격이 급한 반면 정이 많다고 평해 한국인의 다정다감한 면을 평가한듯 하지만, 경쟁심이 많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좁은 나라, 제한된 자리를 두고 늘 경쟁해야 하는 한국인¹⁵⁾의 단면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중국에 있을 때와 한국에 유학 온 후 한국에 대한 견해의 변천 여부를 묻은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26명의 학생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답한 반면 24명의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답해 자신의 한국관에 변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10명의 학생이 오히려 싫어졌다고 답해 부정적인 견해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에 대한 평가의 변천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사람(24명인 37.5%)과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사람(23명인 35.9%)이 대동소이하게 나타나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대학 측과 한국인의 보다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견해가 바뀌지 않았다는 학생 17명까지 합치면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표 9> 중국인 유학생들이 바라본 한국어 전망

질문	질문 항목							
	① 예		②아니오					
1. 중국 내에서 한국어의 가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39명	60.9%	25명	39.1%				
2. 만약 증가한다면(or증가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문화유입 교류증대		무역증가 한국어 학습자 증가		빈번한 전쟁 협한자 증가		문화적 충돌 증가	
3. 좋아하는 한국 가수가 있습니까?	①이효리		②비		③소녀시대		④기타	
	20명	31.2%	17명	26.6%	13명	20.3%	14명	21.9%
4. 좋아하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있습니까?	아내의유혹 클래식		왕의남자 해운대		폴하우스 빠리의여인		대장금	
5.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①중국어와 어 순이 달라서		②글자가 어려 워서		③교육 기관이 적어서		④한국어 사용 기회가 적어서	
	18명	28.1%	3명	4.7%	5명	7.8%	38명	59.4%

14) 국제적인 컨설팅업체 '머서 휴먼 리소스 컨설팅(Mercer Human Resource Consulting)'이 전 세계 143개국의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도시의 물가를 조사한 결과 2008년 서울이 모스크바와 런던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www.mercerhr.com)

15) 전통시대 한국인들의 가장 큰 꿈은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하는 것이었다. 과거에 급제한다는 것은 개인의 출세를 넘어 가문의 영광으로 받아들여졌고 가장 큰 효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시험을 통해 관료로 진출하는 문화전통이 전통시대 한·중 사이에 공통으로 존재했던 문화적인 현상이었다. 중국유학생이 한국사회를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는 데는 이러한 비슷한 역사와 문화적인 환경이 배경에 깔려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6. 중국 친구가 한국을 방문한다면 가장 소개해주고 싶은 곳은?	①궁궐		②놀이동산		③ 바닷가와 해수욕장		④기타	
	8명	12.5%	24명	37.5%	21명	32.9%	13명	17.1%

<표 9>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통해 본 한국어에 대한 전망 부분이다. 중국인 유학생 중 39명인 60.9%가 향후 중국 내에서 한국어의 가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그 원인으로 한국 문화 유입과 교류 증대, 그리고 무역 증가와 한국어 학습자 증가를 들었다. 즉 이들은 한국 교역 증가에 따른 양국 간의 우호 증대와 문화 교류 증대가 한국어의 필요성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의 비중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도 25명에 달했다. 문화적 충돌 증대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든 점에서 볼 때 동북 공정 등에서 비롯된 역사 문제와 민족 문제 등이 부정적인 답변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험한론이 중국인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퍼졌고, 인터넷상에서 주로 의사를 소통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적인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중국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하겠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어 사용 기회가 적었다고 답한 학생이 38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18명이 중국어와 어순이 달라서라고 응답했으며 교육 기관이 적어서라고 답한 학생도 5명에 달하였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습득 양상과 그 활용전망에 대해 살펴 보았다. 많은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글을 습득한 후 대학에 진학하고 있었다. 교육기간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에 이르렀다. 대학과 한국어 교육기관에 신뢰를 가지고 있었고 대학원 진학률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국어 전공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있었고, 한국어에 대한 미래를 밝게 전망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볼 때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어 교육기관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대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도 평가에서 상당수의 학생이 50%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해 외국인을 상대로 한 교수법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용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고, 전문 용어의 경우 선행 학습을 해줌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업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간다거나, 한국어 글쓰기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학생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의사소통에 있어 전문 용어나 학습 용어 그리고 속담 등을 난해하게 느끼고 있어 한국어 교육과 더불어 한국 문

화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졸업 후 진로 예측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였고, 학문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어 전공을 계속할 뜻을 밝혀 한국어에 대한 전망을 밝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장을 선택하는 우선순위에 있어 조국에 대한 기여도와 개인의 부 창출 그리고 직장의 안정성 순으로 나타나 중국인 젊은이들의 투철한 조국관을 엿볼 수 있었다. 한국어에 대한 향후 전망 부분에서도 양국 간의 교역 증대와 문화 교류 증대 등으로 인해 중국 내에서 한국어에 대한 가치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는 한국 내에 유학 중인 중국인들 중 한국어 전공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중국유학생의 한국어 습득 실태를 밝힐 수 있었지만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지는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하도록 하겠다.

참 고 문 헌

- 오주석(2004). 『오주석의 한국의美 특강』. 서울: 숲.
- 김득중(1997). 『실천예절개론』. 서울: 교문사.
- 문형진(2005). “한국인의 혼인풍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세계의 혼인 문화』.
- _____ (2006). “한국인의 민간신앙.”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세계의 민간신앙』.
- _____ (2003). “朝鮮初 婚俗 변천에 따른 법적영향에 대하여.” 『국제지역연구』. 제 7권, 4호.
- 박장배(2003). “근현대 중국의 역사교육과 중화민국 정체성 2 - 중화인민공화국시대의 민족 통합문제를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제 20호.
- 박정현(2003). “청일전쟁에 대한 중국의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의 방향.” 『중국근현대사연구』. 제 20권.
- 법무부(2010).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법무부.
- 오병수(2001). “중국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서술양식과 역사인식.” 『역사교육』. 제 80호.
- 유용태(2003). “중국역사교과서의 현대사 인식과 한국사 서술 - 국가주의의 지속과 변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론』. 제 38권.
- 전인영(1993). “중국의 중학교 새국사교과서의 내용구성과 특성.” 『역사교육』. 제 53호.
- 전일제보통고급중학교교과서(2003). 『중국근현대사』 (上). 인민교육출판사.
- 전일제보통고등학교교과서(2003). 『세계근현대사』(상권). 인민교육출판사.
- 전일제보통고급중학교교과서(2002). 『세계근현대사』(하권). 연변교육출판사.

주희(임민혁 옮김)(2003). 『주자가례』. 서울: 예문서원.
『연합뉴스』. 2010년 7월 2일.

高級中學課本(1992). 『世界歷史』(第三冊). 人民教育出版社.

高級中學課本(1996). 『世界近代現代史』(上冊). 人民教育出版社.

全日制普通高等學校教科書(1998). 『世界近代現代史』(下冊).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 編/20世紀中國中小學課程標準·教學大綱滙編(2001). 『歷史』. 人民教育出版社.

全日制普通高級中學教科書(2003). 『中國近代現代史』(上). 人民教育出版社.

Abstract

Status of Learning and Utilization of Korean Culture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Hyung-Jin Mo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Korean culture acquisition condition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In chapter II, “the Korean Culture Acquisition Process and Proficiency Level”, we looked into the actual state of their Korean language acquisition, speakers and the range of applications of Korean language. Most of the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go on to university with same peers speaking Korean at similar level after studying at Korean language educational institutions. However, it turns up that many students are having troubles in understanding the class, especially with the technical terms and Korean proverbs, and this means Korean language education should be taught with Korean culture. In chapter III, “Utilization and Prospect for Korean Culture”, we looked into correlation between career after graduating from university and Korean language and expected future Korean language. Many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would like to go on to graduate school after graduating from university and work in the fields related with Korean Language. Many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wants to go on to graduate school after graduating from university, and work in the Korean language related fields. Futhermore, they expects that the needs for Korean language will be increasing with growing trade and cultural exchange of Korea.

■ 논문접수일 : 2010년 6월 20일, 논문심사일 : 2010년 8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0년 12월 15일

* Lectur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